

2021년 성탄절 성찬예배

인 도 _ 김광열 장로

□ 모임과 말씀

입례와 초대 _ 김희헌 목사

성탄 초 밝힘 _ 김도영 집사

징울림

예배부름 “오늘의 시편(98편)”

성탄찬송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보통으로 R. S. Willis, 1850

1.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못이집을 천사내려와와
2. 그 못이집을 천사내려와와
3. 그 못이집을 천사내려와와
4. 그 못이집을 천사내려와와

그 손에 비파를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그 힘에 부른 노래를 다 찬송하기를
주에 수탄 생하 시니 온 세상이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이 죄악의 세상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저 천사의 찬송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그 온 세상의 찬송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온 세상의 찬송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온 세상의 찬송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온 세상의 찬송이 온 세상에 다 평안하리라

목회기도 _ 심미용 권사

신앙고백송 국악찬송 217장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

향린 회년 신앙고백

조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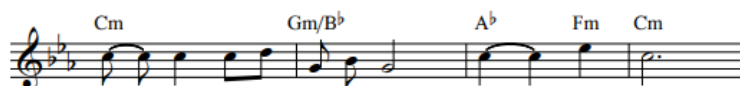
♩.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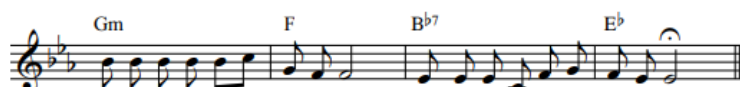
1. 우 리 를 만 - 드 - 신 하 나 님 하 나 님
2. 십자 가 에 달 - 리 - 신 예 수 님 예 수 님



지 금 도 - 우 - 리 - 를 만 드 시 는 하 - 나 님
지 금 도 - 십 자 가 - 를 지 고 가 시 는 예 수 님



공 동 체 로 - 우 리 를 부 르 시 고
해 - 방 의 - 복 음 이 되 - 시 어



억 압 속 에서 - 자 유 를 꿈 꾸 게 하 시 는 하 나 님
고 난 속 에서 - 회 망 을 노래 하 게 하 시 는 예 수 님

* 2절후 음송

<음송>

영이신 하나님 변혁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뤄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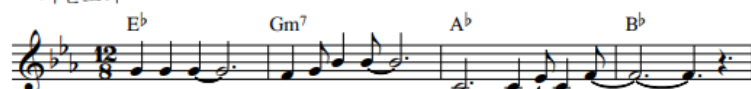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뤄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자진모리 한 장단 또는 짧은 피아노 간주 후 노래 시작>

자진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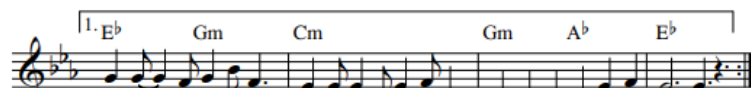
우 리 는 - 예 - 수 의 - 몸 - 과 맘 - -



이 - - 땅 의 - - - 향 기 로 운 - 이 옷 -



나 를 - - 살 리 고 너 를 - - 살 리 는 생 명 의 - 숨 결 -



성 문 - - 밖 으 로 낮 은 - - 자 리 로 새 하 늘 새 땅 으 로 -



성서읽기 “이사야서 52:7-10, 히브리서 1:1-4, 요한복음서 1:1-14” - 손정아 집사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묵상송 국악찬송가 9장 “우리를 깨우치소서”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하늘뜻퍼기 “육신이 된 말씀” - 김희헌 목사

응답찬송 국악찬송가 73장 “임마누엘 주님”

중중모리

1. 사 랑 의 주 님 예 수 세 상 에 오 - 셧 네
 2. 자 비 의 주 님 예 수 세 상 에 오 - 셧 네
 3. 정 의 의 주 님 예 수 세 상 에 오 - 셧 네
 4. 은 혜 의 주 님 예 수 세 상 에 오 - 셧 네

가 난 한 우 리 에 게 새 기 뽐 주 - 시 려
 눈 이 먼 우 리 에 게 새 빛 을 주 - 시 려
 포 로 된 우 리 에 게 자 유 를 주 - 시 려
 주 님 의 크 신 은 우 리 에 게 주 - 시 려

우 리 의 임 마 누 엘 아 기 로 오 - 셧 네
 우 리 의 임 마 누 엘 인 자 로 오 - 셧 네
 우 리 의 임 마 누 엘 왕 으 로 오 - 셧 네
 우 리 의 임 마 누 엘 구 주 로 오 - 셧 네

사 랑 의 기 뽐 소 식 - 우 리 맘 넘 - 치 리
 자 비 의 귀 한 손 길 - 우 리 눈 밝 - 히 리
 정 의 의 선 한 싸 움 - 우 리 몸 구 - 하 리
 은 혜 의 놀 라 운 힘 - 우 리 를 살 - 리 리

□ 성찬예식

집 레 : 김희헌 목사

초대와 응답

집례자 :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어 천한 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 온 세상이 그 말구유를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집례자 : 우리의 아픔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육신이 되셨고 끝내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회 중 :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이 떡과 잔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집례자 : 주께서는 이 식탁에 가난하고 굶주리며 애통해 하는 자를 부르시어,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먹이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 중 :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집례자 :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2:14) 성탄을 기뻐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성찬의 기도

집례자 : 아기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집례자 :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 중 :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집례자 :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 중 :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같이 :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공동기도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 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 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 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흠어진 형제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 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찬의 말씀

집례자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집례자 :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다같이 :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분병례

집례자 : (떡을 떼어 높이 들며)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례자 : (잔을 높이 들며)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회 중 :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같이 :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자비의 간구

집례자 :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 중 : 하늘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집례자 : ‘주님의 식탁’에 나아왔으나, 우리는 이 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 중 :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집례자 :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회 중 : 우리의 현실을 통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

집례자 :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나누고자 이 예식을 드립니다.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 받은 새사람이 되게 하소서.

회 중 :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같이 :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귄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탄 축하와 감사

성탄 축하 음악회 _ 성가대 / 예향

1. 합창 - 성가대

“빛을 비추시네” (Lee Dengler 곡)

2. 소금 연주 - 나영훈

“성탄절 밤에” (이건용 곡) / “영광 나라 천사들아” (류형선 곡)

■ 피아노 | 조계연 ■ 장구 | 김지목 ■ 합창 | 성가대

3. 합창 - 성가대

“노엘 즐겁게 찬양해” (Jay Rouse 곡, Camp Kirkland 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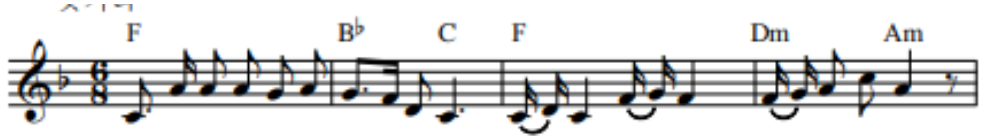
감사송 국악찬송 16장 “우리의 정성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 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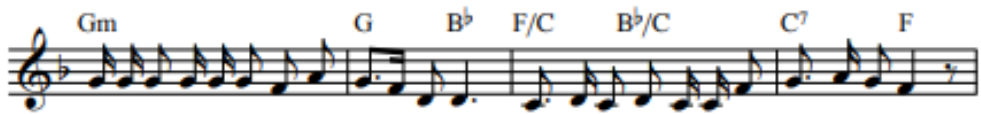
감사기도 _ 정수미 집사

☐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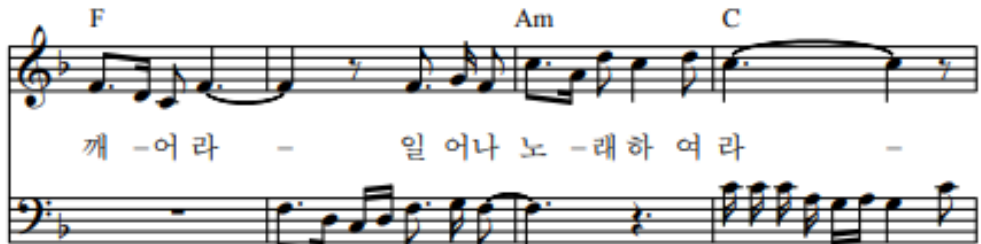
결단찬송 국악찬송 132장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



1. 우 리가 잠들 어 누 - 운 밤 하늘도 땅 - 도 모두 잠 들어
2. 높 은 보좌 내 리 치 - 고자 낮 - 고 천한 자 일 - 으 키 고



낮은 자 들어 새 벽 을 깨 - 우는 주 께서 우 리를 부 르 셧 으니
약한 자 들어 새 일 을 행 - 하는 주 께서 우 리를 택 하 셧 으니



깨 - 어 라 - 일 어 나 노 - 래 하 여 라 -

깨 - 어 - 일 어 나 - 새 날 잉 태 한 - 이 여



오 - 랜 수 난의 세 월 이 기 고 새 날 을 낳 으 리 - - 라

세상으로 보냄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후13:13)

응답송

징울림

☐ 공동관심사 나눔

1. **성탄절** : 이 땅의 고난받는 이들과, 또한 코로나를 인내하는 교우들의 삶에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연말제직회** : 오늘 예배 직후
3. **임시당회** : 오늘 오후 2시
4. **2021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아로마시 - 미얀마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 오늘 오후 4시30분, 온라인 참여(유튜브-뉴스앤조이)
5. **목회운영위원회** : 12월26일(일) 오후 2시, 온라인
6. **송구영신기도회** : 12월31일(금), 기도묵상 영상자료
7. **광야생활 예배 안내**
 - 12월25일(토, 성탄절) : 대면예배(연말제직회)
 - 12월26일(주일) : 비대면 예배로 전환
 - 1월2일(주일) : 비대면 예배

